

**미 보잉사,
터키와 737여객기 판매 계약**

미국 보잉사는 강력한 경쟁자인 에어버스를 물리치고 터키 국영 항공사로부터 737-800여객기 49대를 약 20억불어치 수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보잉사는 또한 중국과 항공기 30대를 판매하는 20억달러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보잉사 대변인은 터키 국영 항공사가 26대를 확정발주하는 한편 추가 23대를 옵션 구매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확정발주분은 내년, 옵션 구매분은 2002년까지 각각 인도된다고 덧붙였다.

보잉사는 터키 국영 항공사의 발주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3백55대의 여객기를 수주하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아시아나 미국 AA와
업무제휴**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아메리칸에어라인(AA)과 11월부터 태평양 노선을 공동운항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 뉴욕에서 협약을 맺고, 오는 11월부터 아시아나가 운항중인 서울발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주 5개

노선에 대한 공동운항과 함께 양사의 마일리지제도 공유, 공동마케팅 등 모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A는 6백49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종업원 11만명의 세계 최대 항공사이며, 매출 96년 1백77억5천만달러 및 운항수익 96년 10억1천만달러 등 경영면에서도 최고의 항공사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내 94개 도시와 전세계 95개 도시에 운항하고 있는 AA는 영국 브리티시항공(BA), 호주 콰타스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美·日 항공협상 결렬

일본 동경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항공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마감기한인 9월 30일을 넘겼다. 미국측 대표단은 "비록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협상에 많은 진전을 보았다"며 "오는 10월 20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 대표단은 그동안 논의 되었던 FedEx, 노스웨스트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일본을 경유한 타 지역 노선의 신설에 대한 협상이 많은 진전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 항

공사가 일본내에서 항공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우려, 미국의 완전한 오픈스카이 정책이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미국 협상팀은 일본내 미국 항공기 취항수가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은 일본의 전일항공이 미국내에 무제한 취항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비록 양국의 협상에서 미국의 다른 항공사(델타 항공, 아메리카 항공, 컨티넨탈 항공)의 양국간 취항수의 증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주일에 91회 이상 취항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70회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일본측 대표는 "비록 미국의 요구가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번 10월 협상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이탈리아,
A320 구매협상중**

이탈리아의 알이탈리아(Alitalia)항공사가 유럽 에어버스(Airbus)사와 A320기종을 포함한 A321기종 23대의 구매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알이탈리아 항공은 에어버스사 150석급 단일통로형

기종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다. 동 항공사는 이와함께 노후기종에 대한 장기전략을 수립중이다.

일부 소식통은 이번 에어버스사와의 구매협상은 10월까지 마무리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이탈리아 항공은 지난 1989년 주문한40대의 A321기종중 17대를 인수완료했다.

동 사는 현재 장기전략을 수립하면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취항기종의 수를 감소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이탈리아사는 보잉 747-200기종 8대, MD-11기종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6대의 767-300ER기종을 임대해 운항중이다. 알이탈리아의 도미니코 켈플러 사장은 "내년경 보잉이나 에어버스가중 1개사를 중점 협상업체로 선정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향후 어떠한 주문도 회담의 결과와 동사의 현금보유 능력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루다항공, 737 인도 지연 재정난이 주요인

인도네시아의 Garuda(가루다)항공사는 최근 기주문한 미 보잉(Boeing)사의 737-300/500 17대의 인도를 늦추고 있다.

지난 8월에 인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동 여객기는 현재 시애틀에 머물러 있다. 보잉사는 Garuda 항공에 인도할 2번째 737기종을 완성했으나 Garuda 항공이 임대를 위한 재정이 보장될 때까지 인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잉사는 Garuda 항공에 올해까지 737-300/500 9대, 내년까지 8대를 인도할 예정이었다. 가

루다 항공사는 기주문한 1대의 747-400기종 대신 5대의 -500을 주문했으며 9대의 737-400 대신 12대의 -300기종을 주문했다.

보잉사는 이번 Garuda 항공의 인도지연을 통해 그동안 밀린 주문량을 해소할 수도 있으며, Garuda 항공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의 Exim 은행은 Garuda 항공에 임대보증을 서줄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Garuda 항공사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정부는 사유화를 통한 재정난 해소를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도 Garuda항공은 독일 은행의 보증을 겨우 받아 롤스로이스 트렌트(Trent)-700 엔진을 장착한 에어버스사 A330 6대를 인도한 바 있다.

한편, Garuda-보잉간 체결된 777기종의 구매도 747-400의 주문 지연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Garuda 항공사는 777기종의 2000년 인도를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문량과 엔진 종류가 1998년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알이탈리아 항공은 내년까지 에어버스 혹은 보잉사중 중점협상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